

주간농사정보

2022. 1. 16 ~ 2022. 1. 22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자율교환 및 자가 채종 법씨를 사용하는 농가는 종자활력검사를 필요하고, 고구마 육묘상 준비와 씨고구마 확보에 신경 쓰며, 겨울철 온실 화재 예방과 과수 꽃눈 동해 피해 확인 관리에 힘쓴다.

1. 벼농사

-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종자활력검사를 받아야하며 등숙기 잦은 경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발생종자는 발아 검사가 필요하며 수발아 종자의 발아율은 70~72%로 정상종자 97~98%보다 낮다.
- 벼 정부보급종 추가신청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므로 필요한 종자는 기한 내 신청하고, 보급종 공급시기가 3. 31.까지 이므로 지역별 수령일을 확인하도록 한다.
- 벼의 품질 손상을 줄이기 위해 15% 이하 함수율과 15℃ 이하 온도 및 70% 이하 습도에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나 해충은 악취, 변색, 발열, 독소 등을 생성시켜 벼 품질손상의 원인이 된다.
- 저장고의 건조 저장용 송풍기의 동력전달 벨트 장력과 보조열원 장치의 작동 유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밭작물

- 고구마 재배를 위해 육묘상을 준비할 농가는 씨고구마를 확보해야 하는데, 10a의 고구마 재배에 필요한 묘는 4,500~7,100본 정도이므로 씨고구마 1kg당 묘 생산량이 20~30개 인 것을 감안하면 10a 에 필요한 씨고구마는 75~100kg이다.
- 고구마 조기재배유형에 따라 비닐하우스 육묘상 설치는 1월 하순~2월 상순이며, 비닐피복 육묘상은 2월 상순~중순에 재배면적에 적절한 육묘상(10a에 약 10m²)을 설치한다.
-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건부병, 검은점박이병, 덩굴쪼김병 등의 발생이 염려되므로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을 실시한다.

3. 채 소

- 겨울철 온실 화재는 난방을 위한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방기 주위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기 시설 사용하고, 노후화된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한다.
- 온풍기 등 가온시설과 보온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정전, 온풍기 고장 대비 부직포 등 응급대책 자재를 준비해야 한다.
- 시설재배 작물별 적정습도 유지로 생육관리 및 병 예방에 유의하고 보온 커튼은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며, 작물별로 최저 생육한계온도를 확인하여 동해를 예방한다.
-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마늘·양파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잘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한다.

4. 과 수

- 과수 동해 피해 확인을 위해 꽃눈 분화율 조사 방법으로는 품종별 수세가 균일한(중간정도) 나무를 선정해서 꽃눈을 채취하고 눈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2등분하여 확대경을 이용하여 꽃눈 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꽃눈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 60~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 실시하고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해야 하는데 매년 발생하는 3~4월 저온피해로 인해 꽃눈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꽃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